



SATURDAY, NOVEMBER 6, 2010



브루클린 뮤지엄을 찾은 한국아트소사이어티 회원들. 왼쪽 끝이 대표 로버트 텔리씨

## “한국예술품, 와~우 놀랍다!”

### 한국아트소사이어티

“왜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모든 예술품들은 그저 놀라워요!” 5일 한국아트소사이어티(KSA · 대표 로버트 텔리)가 진행하는 브루클린 뮤지엄 내 한국예술품 저장고 투어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안의 작품들을 한국아트소사이어티에 만 특별 공개하는 네 번째 투어이다.

이날 회원들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25점의 다양한 예술품을 감상했다. 작품은 거울에서부터 연적, 자기, 병풍까지 다양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해 온 텔리씨는 고려시대 청자와 조선시대 백자의 차이점

### 브루클린뮤지엄 한국수집품 저장고 방문

KSA 대표 로버트 텔리씨는 15년 전 한국을 우연히 방문, 한국 고(古)예술품에 매료돼 미국에 돌아온 후 한국아트소사이어티를 창립, 매년 두 차례 브루클린 뮤지엄 저장고 투어를 진행한다. 100여년 이상 한국예술품을 수집해 온 브루클린 뮤지엄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한국 예술품을 소장한 곳이다. 일반인에게 전시하지 않는 저장고

를 명료하게 설명했다. 또 각 작품에 새겨진 문양이나 색깔, 질감 등에 대해서는 아시안 아트 큐레이터 조앤씨의 설명이 더해져 이해를 높였다. 대학에서 관광학과 세계예술을 가르치는 로즈메리 교수는 “한국 예술품은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일본과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다”며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소영 인턴기자>